

지역 소식통

부안군, 세계 자연재해 감소의 날 기념 환경교육

부안군은 지난 13일 세계 자연재해 감소의 날을 맞아 지질공원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국립공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했다.

매년 10월 13일은 세계 자연재해 감소의 날(International Day for Disaster Risk Reduction)로 1989년 국제연합(UN)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세계적 자연재해의 수치는 1980~1999년과 비교해 2000~2019년에 약 2배로 급증했으며 실제 홍수와 폭풍, 폭염 등 기후 관련 비상사태가 현저히 증가한 것을 전 세계 곳곳에서 실감할 수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세계 자연재해 감소의 날의 의미와 기념 배경을 이해하고 매년 급증하고 있는 자연재해의 위험 인식과 재난 감소를 위한 개인 및 사회의 활동에 대해 교육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립도서관, 제7회 책읽기마라톤대회 성료

정읍시 도서관사업소는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책 읽는 문화 도시 조성을 위해 8개월간 진행해 온 '제7회 책읽기마라톤대회'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책읽기마라톤은 독서와 마라톤을 접목시켜 책 1쪽을 2m로 환산 자신이 도전한 독서 코스를 완주하는 범시민 독서캠페인이다. 이번 대회에는 총 277명이 참여해 102명이 완주했다.

이 중 5명의 우수 완주자에게는 정읍시장상을 수여하고 5명의 우수 학생에게는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상을 수여했다.

이번 대회를 완주한 한 시민은 "대회를 통해 많은 책 읽는 문화와 건강한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 것 같아 좋았다"고 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이 책 읽는 문화를 형성하고 자기계발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행복나눔공유냉장고' 정착 성공

정읍시, 지난해 10월 문 열어 취약계층 2만8000세대 도와

지난해 10월 문을 연 '행복나눔 공유냉장고'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며 정읍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공유냉장고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민간 주도 비예산 사업

으로 지역민이 기부한 신선한 식자재와 가공식품을 취약계층 이웃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공유·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모두에게 따뜻한 체감형 복지 실현과 나눔을 통해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시작된 사업이다.



정읍시, 전북 자활상품 시·군 순회장터 개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견인

정읍시는 지난 13일 시청 광장에서 도내 6개 지역 14개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 참여한 가운데 자활생산물 순회장터를 개최했다.

순회장터는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자활생산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착한 소비를 촉진하고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상품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자활기업의 전반적인 홍보를 통해 자활인들의 자긍심과 자활사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순회장터 목표 중 하나다.

이번 순회장터에서는 베이커리, 액세서리, 향수, 애견간식, 건포도 등 다양한 상품이 지역주민의 호응 속에서 판매가 이뤄졌다.

상품을 구매한 한 소비자는 "이번 장터를 통해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달



라졌고 앞으로도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계속해서 소비자에게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취약계층이 자

활자활센터를 통해 기술을 배우며 나아가는 도전정신이 멋져 보인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군민 의견 접수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2023년 부안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3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군민 의견을 접수 받는다.

의견제출을 희망하는 주민은 부안군의회 홈페이지와 전화(☎ 580-4081),

팩스(F. 580-4099),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중 9일간 제3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 전반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김광수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시 군

민의 의견을 수렴해 부안군 현안에 대한 군민의 의문사항을 중점 감사할 것"이라며 "군민의 의견이 부안군정에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이 13일 군청 군수실에서 고창출신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신청 TF팀(이하 TF팀) 구성에 따른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의향 고창" 정체성 확립 계기

독립운동가 발굴·서훈신청 TF팀 위원 위촉·첫 회의

고창군이 13일 군청 군수실에서 고창출신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신청 TF팀(이하 TF팀) 구성에 따른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팀은 독립유공자 유족과 독립운동 관련 역사문화 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총괄분야와, 사료수집, 자료검증 및 자문 등 운영체계를 구성하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날은 고창출신 독립운동가 발굴에 뜻과 지혜를 함께 모을 민간위원 위원 8명을 대상으로 심덕섭 군수가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회의를 통해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회의에서는, 고창출신 독립운동

가 발굴 및 후속추진 계획과 관련해 앞으로 TF팀의 주요역할 및 추진업무 등에 대한 위원들 간 토론이 이어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TF팀이 그동안 그 공훈을 인정받지 못한 지역의 독립운동가 발굴하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의향 고창의 정체성 확립하는 계기로 발돋움 하기 위해 TF팀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올해 말까지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군민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TF팀 운영을 통한 자체 기본 조사를 추진한 후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체계적인 공훈 발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명품멜론, 소비자에 인기몰이

고창군의 명품 멜론이 추석이 지난 요즘에도 연일 좋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현재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판매되는 고창 멜론 가격은 3만5000에서 4만원으로 타지역의 일반 멜론 가격(3만원~3만5000원)에 비해 8% 높게 받고 있다.

매년 기상이변으로 극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과 사업 지원 등 행정, 농업기술센터와 지역 농업인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고창은 150농가 100ha를 재배하고 있으며 매년 7~8월 이상기온 및 연장장해등이 발생하여 농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급성 시들 현상이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황화바이러스(CABVY)등은 수확시기에 양질의 멜론을 생산하는데 어려

움을 주고 있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미생물들을 사용한 식물면역력 향상과 바이러스를 전이하는 매개충을 예방하도록 사전 교육하고 있다.

특히 고창멜론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촌개발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해 품질이 균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획득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높이는데 앞장섰다.

대외적으로도 고창멜론의 품질을 인정해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2022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 평가에서 고창멜론연합회가 최우수상(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 2023년 소비자 선정품 품질만족 대상 을 7년 연속 수상하는 등 고창 멜론의 가치를 드높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